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이 정 숙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삶과 죽음 | 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라는 큰 소명을 가지고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지 2년째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내가 호스피스 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때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이 환자가 아파하는 모습과 간병하는 문제로 힘들어할 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롭기도 했습니다.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병원의 통증관리와 때로 무리한 치료 및 진행되는 병세의 설명부족 등으로 말기 암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곁에서 지켜 보면서 말기 질환에 대한 뭔가 새로운 의식전환이 의료진에게는 물론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날도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봉사 전 기도를 마치고 호스피스 환자의 명단을 살펴보면 중 '김 OO 가브리엘 35세 췌장암 말기'란 이름이 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하여 건강해야 할 35세의 젊은이가 췌장암이란 진단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감에 휩싸였을까,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911호 6인실 구석 병상 발치에 '깨우지 마시오.'라는 메모를 붙여놓고 환자는 눕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은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잠도 자지 않으면서 눈만 감고 있는 것 같았고 진행된 암과 투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의 병사와도 같아 보여 안쓰러웠습니다. 그가 심리적으로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차마 그를 깨울 용기가 나지 않아 30분간을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머물다가 그냥 병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의 만남은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되었다.

매주 병실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늘 차분하고 조용히 통증을 달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몇번은 인사와 주변정리 외에 달리 도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가오는 것을 알았는지 눈을 지긋이 뜨고 "오셨어요?"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저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예",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없어요, 아침 먹은 것이 체했는지 거북하네요." 저는 예전에 조금씩 배워 두었던 지압과 마사지를 하면서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조금 후 그는 트림을 하면서 한참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전문적으로 배우셨나봐요? 속이 시원해요. 힘드신데 그만하세요." 하였다. "난 괜찮아, 불편한데 있으면 미안해하지 말고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다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린 어느새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저도 건강해지면 봉사를 하고 싶어요. 꼭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마음속의 괴롭고 힘든 사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3세가 되던 해인 1998년 11월말경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앞으로 길어야 약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치의가 수술을 권했으나 수술로 완치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수술하지 않고 가능한 고통없이 살다 죽겠다는 결심으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죽음이 두렵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물론 경

제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민간요법과 대체요법을 병행하면서 집에서 지내던 중 통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져 성바오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민간요법과 대체요법은 별 도움이 되지 못했고 괜히 돈만 버리고 가족들 고생만 시킨 것 같아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눕지 않고 앉아 있기만 하는지 이유를 물으니까 제 손을 자기배에 갖다 대었습니다. 명치가 있는데서부터 옆으로 주먹 2개정도 크기의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졌고, 이것이 가슴을 눌러 숨이 차고 아파서 눕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잠깐씩 조는 것이라고... 잠시라도 누워서 편하게 잠잘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환자들이 맞는 링겔주사도 맞지 않고 치료에 필요한 여러가지 검사도 거부하며 병원식사 또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온 음식을 먹거나 혼자 병원 앞 일반인 식당에서 입에 맞는 음식을 사서 먹곤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때로 의사나 간호사들과 마찰이 있었고, 일반환자들과 함께 병상생활을 해야 하므로 환자는 병고뿐만 아니라 불편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고독한 상태가 계속 되었습니다.

환자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동안 형의 수입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늘 미안해서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면 의사의 처방을 되도록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증은 더 가중되어 진통제를 1일 4~5회 이상 맞았는데 한가지 특정 진통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는 그 정도의 증상과 통증으로 보아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생각했는데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의약품이 발명 될 때까지 살아 남겠다는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는 병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으며 오후에 엄마가 잠깐 오셨다가 가시고, 가끔 형이 다녀갔습니다.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밤사이 옆 병실 환자가 실려나가 돌아오지 못 할 여행을 떠났는지 가족들의 서러운 곡소리가 가슴을 파고들때,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감싸 며칠씩 잠을 못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고통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해 여름도 가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그는 병원을 옮겨야겠다고 했습니다. 진통제 맞는 문제로 주치의와 의견이 맞지않아 병원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외가가 있는 대구로 갈까? 서울 시내 복지병원으로 갈까?' 고심하던 중 여동생이 있는 일산에 있는 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환자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구! 선생님, 여기 한번 놀러와요. 병원도 깨끗하고 통증이 오면 참지 말고 말하래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 주겠다고요." 무척 밝은 음성이었다. 마치못해 보낸 것이 아쉬웠고, 그가 보고싶은 참이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당연히 앉아있으리라 생각했던 그는 편히 누워 있었고,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불안과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편안해 누워있을 수가 있구나 싶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암 환자의 통증 관리에 있어 정서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바람을 좀 쏘였으면 좋겠다기에 옥상 잔디밭으로 갔습니다. 가을이라 바람은 쌀쌀했고, 하늘은 높았습니다. 환자가 감기에 들까봐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주머니를 배에 대주고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렇게 하늘이 푸르고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늘님은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죠? 나는 삶을 잘 못 살은 거 같아요." 그가 말했다.

처음 암 진단을 받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죽는 다는데, 병원 앞 버스정

류장에는 여전히 시내버스가 왔다갔다 하고, 사람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깔깔대며 걸어가고, 연인들은 팔짱을 끼며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슬퍼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한참 후에야 알았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없어도 여전히 돌아가고, 하느님은 나만의 하느님이 아니고 모든이의 하느님이란 것을... 건강할 때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그동안 소중한 것을 못 알아본 것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일생은 행복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고통의 시간이 더 많았는데도 더 살고 싶으니 알 수가 없다면서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속마음을 털어 놓으며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했고 체념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못 나오면 병실 좀 지켜달라는 연락을 하였고, 보고싶다는 전화를 하기도 하면서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체중도 줄지 않고 먹는것도 변함없이 제 양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우울해 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며 “죽어가는데 아무치료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힘들어요. 나는 죽기 싫어요.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무서워요. 죽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라고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이럴때는 같이 울기도 하면서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죽음을 피해 갈 수 없어.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이지. 다만 어떤 사람은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고, 태호는 조금 가까이 있다는 차이일 뿐이야. 10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볼 때 조금 더 산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하며 위로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인 지난 어느날, ○○ 가족들은 입원비를 이기지 못해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빌려 썼던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태호가 있는 병원 옆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는 그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아니면 한계에 이르렀는지 굳건하던 ○○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고 괴롭고 힘들다는 소리를 자주하며 어머니에게 잘못 해드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면목이 없고 미안한데, 막상 보면 화가 나서 큰 소리 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을때는 돈이 중요한지 잘 몰랐는데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와 함께 담당선생님을 만났는데 “환자가 얼마 남지않은 삶을 잘 정리하고 있으니 어머니께서도 마음준비 잘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자의 담당선생님과 간호사, 일산 본당의 수녀님과 봉사자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환자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옆에서 내 몸같이 돌보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천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는 서서히 육체의 힘을 잃어가며 삶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분들을 만났기에 이제 ○○도 하느님 곁으로 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쇠진한 기력을 다해 자주 목상기도와 영성체로써 마음을 다잡는 ○○의 모습이 숭고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인 7월 26일 ○○ 어머니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리 ○○가 하느님 곁으로 갔어요.”하면서 흐느끼셨습니다. 그대로 달려간 병원... 병실에서 보던 ○○를 영안실에서 만났습니다. 소원하던 대로 진통제 주사를 맞고 잠자듯이 아주 편안한하게 하느님 곁으로 갔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대접을 받고 갑니다.”라는 말을 남기고서...

가브리엘!

그렇게 이승에서 떠나기 싫어하더니, 하늘나라로 간 지금 어떻게 지내니?

이제는 주님의 품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찾았겠지. 아프지 말고 잘 지내렴.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안녕...